



무등산 정상부에 핀 ‘눈꽃’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나뭇가지마다 올해 첫 설화(눈꽃)와 상고대(서리꽃)가 펴 등산객이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하고 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무등산 영하 9.3도, 구례 성삼재 영하 9도, 광양 백운산 영하 3.1도, 영광 영하 2.5도, 순천 영하 1.3도, 목포 영하 0.5도 등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행정절차 2024년까지 끝낸다

신활력행정협의체 주도 원스톱 지원 속도

사업 계획 수용시 2027-2028년 건립 전망

광주시가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복합쇼핑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027년에서 2028년에는 복합쇼핑몰이 건립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복합쇼핑몰 제안서를 제출해야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광주시 에 제출하면 사업계획서는 먼저 시민들 에게 공개되며 곧바로 관련 부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가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에 나선다.

유통 빅3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처음으로 지난 21일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가 곧바로 가동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세계와 롯데도 올해 안에 복합쇼핑몰 관련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는 게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신활력행정협의체의 검토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제안 사업자는 사업 내용을 홍보한다. 이후 시민·시의회의 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절차를 마치면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한다. 업체 선정과 함께 어떻게 건립할지에 대한 방향을 내놓게 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몇 개 업체가 복합쇼핑몰 사업자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민 대부분이 궁금해 하는 몇 개의 시설이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 “신활력행정협의체의 결정과 사업자들의 시장성 판단에 따라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체 선정이 끝나면 ‘복합쇼핑몰 신활

력행정협의체’가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신속한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가칭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제안지역 자치구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상반기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예상이다.

복합쇼핑몰 공사 기간이 통상 2년에서 2년6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2027-2028년에는 복합쇼핑몰이 운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 시청 중회의실에서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제출한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부서별 소관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등산에 스타필드를 계획 중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롯데그룹도 올해 안에 복합쇼핑몰 사업 참여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尹대통령 거부시 탄핵소추안도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안전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회견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철뉴스

광주정신 뿌리 ‘봉심정’ 복원 한목소리

본보 주최 좌담회…김정길씨 등 주역들 활성화 방안 논의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봉심정’을 복원하고 광주정신의 뿌리를 재조명해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5면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봉심정 좌담회는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지난 29일 오전 11시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좌담회에는 봉심정의 옛 주인 김정길

씨와 이강·김상집·전용호·이재의씨 등이 이곳을 드나들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전국 민주화운동의 태동인 함성지 사건, 전남대 부사와 총학생회 비밀기획실, 녹두서점, 들불야학 등 세대를 아우르는 인사들이 참여해 봉심정의 가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 참여한 봉심정 민주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기준으로 선양되는 민주역사를 그 이전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970년대 초 전국의 최초 반유신 운동으로 기록된 함성지 사건과 민청학련, 전남대교육지표사건 등 시대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은 70년대부터 광주 민주화운동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조직화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서 민주정신을 뿌리내리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5·18에 참여한 민주인사들은 대부분

이때 형성된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고, 이 밖에도 각지에서 농민·문화·선교운동 등으로 나뉘 그 맥을 이어갔고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바지 했다.

이들은 1970년대 사회 격변의 시기 민중을 대표해 민주화운동을 펼친 대표공간으로 봉심정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복원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원동력이자 구심점으로 봉심정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서슬퍼런 정권의 감시 속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 드러나지 않고 보안이 유지된 장소로서의 공간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용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은 “망월동 묘역, A CC 등 민주화 역사에 관련된 광주만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의 뿌리인 봉심정을 공간적 가치로서 조명하고 광주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함께하는 나눔
자주하는 미담

성금 접수 계좌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산업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광주광역시와 함께 합니다

추락위험 방지 수칙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발판 /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및 부칙설비 설치

끼임위험 방지

동력기계, 회전축 등에 덮개 등 설치
방호장치 해체 금지
동작중인 기계에 접촉금지

보호구 착용

안전모 : 추락·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
안전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끼임, 물체 낙하 등 위험 작업